

“이화는 새로운 시작, 피겨는 운명적 사랑”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광민정 선수 인터뷰

“이화여대 입학이 ‘제2의 피겨인생’으로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서 시니어 여자 싱글을 책임지고 있는 광민정(체육과학·12)씨를 22일(수)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만났다. 이 날은 신입생이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었다. 광씨는 웃으며 “오늘 아침 수강신청을 모두 성공했다”고 말했다.

광씨는 수시 1차 예·체능우수자 전형으로 본교에 합격했다. 그가 본교를 선택한 것에는 주변의 영향이 컸다. “주변에 이대 출신의 피겨계 선배들이 계시고 이대 입학을 권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기쁘요.”

광씨의 ‘제1의 피겨인생’은 화려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13위를 차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허리 부상으로 한동안 고전을 겪다가 부상을 딛고 작년 2월 아르티나-알마티 아시안게임에서 국내 피겨 여자 싱글 최초로 동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광씨는 라이벌 관계로 함께 성장할 또래가 없어 외로웠다고 말했다. 주니어 때 경쟁하던 또래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인해 대부분 선수 생활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도 유일한 시니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다.

광씨는 본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는 이미 많이 친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매일 연습을 하느라 한 번도 원피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청바지나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요. 같이 수업 듣는 친구로 편하게 대해주세요.”

학교에서는 21일(화) 광씨가 학생증을 신청하러 등교했다는 소식이 금세 소문나기도 했다. 광씨는 이에 놀란 눈치다. “금방 신청서만 내고 왔고 저를 본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해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광씨는 올 겨울 빠빠한 훈련 일정으로 3월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할 예정이다. 이미 2월 중 4대륙선수권대회와 동계체전에 출전했고, 시즌 마지막으로 3월26일~4월1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광씨는 “얼른 학교에 가고 싶지만 국가대표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시즌이 끝나면 등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씨는 앞으로 학교생활과 선수생활 모두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아 언니가 수업도 많이 듣고 학교생활도 즐기라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학교에 나가면 훈련 일정이 조금 줄겠지만 운동은 만 1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고해강 기자 boxer@ewhain.net**



올댓스케이팅 아이스쇼에 참가한 광민정씨
사진제공 : 광민정씨

대학 생활 미리 맛보는 새내기 3인방

24일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을 통해 약 3천명의 새내기가 입학했다.

이들 중 입시 때문에 소원해진 자신의 관심사에 다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새내기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새미 기자 semi0809@ewhain.net**

△“세 마리 토끼 잡을 거예요”... 공부 때문에 포기했던 기타연습 시작한 홍누리씨

홍누리(분자생명·12)씨는 12학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클래식기타동아리 ‘예울회’에 들어가기 위해 작년 겨울부터 기타연습을 하고 있다. 대학 입학 후 입시 때문에 그만뒀던 기타를 다시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홍씨는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 외의 것들은 과감히 포기했다. 5년간 배운 기타 역시 잡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 동아리실에서 친구와 함께 매일 기타연습을 했다. 맑은 음색을 가진 클래식기타의 매력에 다시 빠져 들었다.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 외에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부만 하는 대학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공부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배웠던 기타를 다시 치고 싶었어요.”

홍씨는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 개강 후 예울회에 지원할 생각이다.

“올해 초 학생문화관에서 우연히 본 예울회의 합주공연에 완전히 반했어요. 저도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타 합주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그는 고등학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학생활을 꿈꾼다. “고등학생 때와 달리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지 않을 거예요. 취미도, 생활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모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대학생이 될 거예요”... 총학 집행부로 활동하는 이혜진씨

이혜진(인문·12)씨는 입학 전인 요즘에도 매일 학교에 나온다. 겨울방학에 총학생회(총학) 집행부로 지원해 28일(화)에 있는 ‘새내기 대강당 OT’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총학이 운영하는 사이월드 클럽에서 OT 기획단을 모집하는 공고 보고 총학을 처음 접했다. 그는 수험생활 동안 잊고 있었던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고 싶어 총학에 지원했다.

“총학은 다른 동아리들에겐 없는 장점이 있어요. 현실 속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잖아요. 총학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이씨가 준비하고 있는 새내기 대강당 OT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총학이 주최한 행사다. 이씨는 영상팀에 속해 있다.

“등록금·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상을 만들며 제가 모르고 있던 현실을 접했어요. 이런 문제는 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 가까이 있었어요.”

특히 이씨는 최근 학내 비정규직 미화·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원래는 학교에서 미화·경비노동자분들을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이씨는 개강한 후에도 총학 집행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 한국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도 직접 보고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저에게 총학은 사회를 느끼게 하는 통로예요.”

△“시간채우기식 봉사활동이 아닌 진정한 봉사활동 할래요”... ‘대학생 청춘산타’ 참여한 박민희씨

작년 12월24일은 박민희(수교·12)씨에게 가장 의미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등이 주최한 ‘대학생 청춘산타’에 참여한 날이기 때문이다.

평소 시간채우기식 봉사활동에 회의를 느꼈던 그는 이 봉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작년까지는 공부하느라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교내에서 바닥을 쓸거나 우체국에서 일해 겨우 의무 봉사시간을 채울 때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대학생 청춘산타의 첫 번째 일정은 12월17일 거리모금이었다. 그는 명동, 홍대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혼보, 해고자 가정을 돕는 모금입니다. 도와주세요’라며 홍보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산타복장을 한 3~4명이 한 팀을 이뤄 두 가지씩 방문했다.

“아이가 선물을 받고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어요.”

그는 특수학교 교사인 어머니처럼 함께 나누며 봉사하는 삶이 최종 꿈이다.

“어머니를 보며 봉사하는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깨달았어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제 전공을 살려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홍누리씨
최은별 기자
byeol2728@ewhain.net



이혜진씨
사진제공 : 이혜진씨



박민희씨(가운데)
사진제공 : 박민희씨

중도 자료실 소지품 가지고 출입할 수 있어

3월2일부터 중앙도서관(중도) 자료실에 가방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중도1층의 가방 보관소에 소지품을 맡겨야 했다.

중도는 학생들이 자료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개인 소지품 본신이나 음식물로 인한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 3, 4층에 각각 4대, 5층에 2대의 CCTV가 열람 책상 근처에 설치된다.

중도 현영에 사서장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용 방법을 바꿨지만 자료 훼손, 소지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원(철학·10)씨는 “이전에는 지갑이나 수첩을 가방에서 따로 챙겨야 해서 불편했다”며 “시험기간에는 가방을 맡기기 위해 기다리기도 했는데 편하게 바뀌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실 이용 시 생수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 규칙은 강화된다. 음료나 음식물 부스러기로 인해 자료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경민 기자 grey24@ewhain.net

브리핑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 교재대 납부 및 배부 안내

출판부는 올해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교양필수과목(3과목)의 교재를 할인 판매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7일(월), 28일(화) 오전9시~오후7시에 등록금을 납부한 개인별 가상계좌로 해당 도서의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교재 배부는 3월2일, 5일, 6일 오전9시~오후5시다. 신입생 교재대를 납부한 영수증이나 입금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수험번호를 확인해 수령할 수 있다. 장소는 생활환경관 지하1층 보건소 휴게실이다.

(문의: 3277-3164)

‘EWha 1학년 커리어 Camp’ 3월12일~23일 진행

경력개발센터는 3월12일~23일 오후5시~9시 이화 1학년 커리어 캠프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 필수참여 프로그램으로 ‘이화 스타교수님과 함께하는 “꿈, 그리고 이화”’, ‘대학생활 Secret File (커리어 포트폴리오) 공개’ 등이 준비됐다. 참가자에게는 간식과 기념 티셔츠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문의: 3277-3724)

▶학외

사회문화센터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모집

사회문화센터는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서대문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5~13세)을 돌보는 교육 및 자조모임에 참여가능한 대학생이다. 이 활동을 마치면 봉사확인증이 발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이메일(sh8432@nate.com)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3277-3194)

사회문화센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실 안내

사회문화센터는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3월~12월에 걸쳐 다문화 한글 교실을 연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문의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 3277-2597)

▶학생활동

생활협동조합 책 베품시장 3월6일~7일 개최

생활협동조합(생협)은 3월6일~7일 오전11시~오후4시 학생문화관 지하1층 생협매장 앞에서 책 베품시장을 연다. 3월2일, 5일 생협 매장 앞에서 학생들이 팔고 싶은 중고 책을 접수받고, 3월8일 같은 장소에서 판매된 금액 및 미판매된 책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문의: 3277-3284)

생활협동조합 책 베품시장 서포터즈 27일까지 모집

생활협동조합은 12학년을 대상으로 27일(월)까지 책 베품시장을 함께 진행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학부 및 학과, 이름, 기간 내 근무 가능한 시간을 적어 이메일(byrook@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3277-3284)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생활협동조합은 이화인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상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화인은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coop.ewha.ac.kr)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부하고 가입확인 이메일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3277-3284)

한소리 4월30일까지 신입회원 모집

중앙동아리 한소리는 4월30일까지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노래, 신디사이저, 어쿠스틱기타,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이며 오디션은 없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동아리방(학생문화관 423호) 및 3월5일~9일 학생문화관 로비에 설치된 홍보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아리방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최수진 010-6635-0079)

이대학보

발행인·편집인	김선욱	편집부국장	이채린
주간교수	송기정	사회·국제부장	황미리
편집국장	이채강	대표전화	02-3277-3167
대학취재부장	변주연	팩스	02-313-5194
문화·학술부장	임경민	홈페이지	inews.ewha.ac.kr
대외협력	02-3277-3167	페이스북	facebook.com/ewhaweekly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미디어센터 이대학보사 (ECC B217호)		